

#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 연구

정은진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원

- \* 이 논문은 제7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11.12.)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이훈중 선생님의 『민족생활어사전』(1992)을 통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훈중 선생님께서는 선조들이 삶 속에서 사용한 3,000여 개의 민족생활어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직접 삽화를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베풀으로써 옛 문화와 전통이 잊히지 않고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남다른 사명감으로 귀한 저서를 남긴,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훈중 선생님과 이 책을 강의에서 소개하고 강독을 이끌어 주신 고려대학교 김유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I. 들어가며
- II. 어휘사 교육의 어문생활사적 접근
- III. 어문생활사 교육 내용으로서의 전통 생활 어휘
- IV.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의 내용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인간의 삶과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 또한 늘 변화하는데, 그 자체로 변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사용되는 세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어휘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어휘의 역사에는 언중이 살아 온 사회와 삶의 역사가 담겨 있고, 어휘를 만들고 쓰던 당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어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온전해진다. 어휘를 둘러싼 과거의 풍경, 과거의 어휘가 오늘날에 남긴 흔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게 되고 현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전통 생활 어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언어를 둘러싼 삶과 문화의 요소를 주목하는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된다. 전통적인 삶의 양식은 사라졌을지라도 어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남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매일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에 과거의 삶이 녹아있다는 뜻밖의 발견은 전통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갖게 한다. 과거와 현재, 삶과 언어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말의 역사와 삶의 역사를 아우르는 창의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휘사 교육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삶의 양상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휘사 교육의 어문생활사적 접근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 전통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문생활사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 II. 어휘사 교육의 어문생활사적 접근

언어에 인간의 삶이 담겨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삶과 관련한 요소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언어 단위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어휘는 당대의 새로운 삶과 문화를 반영하며, 사라지는 어휘에는 지난날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sup>1)</sup>

어휘가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그 자체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휘사 연구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 어휘를 다루고 쓰는 인간, 어휘의 변화와 맞물리는 생활과 문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함께 다루는 것은 어문생활사적 관점의 어휘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어휘 변화의 단편적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어휘사 교육에, 어휘에 담긴 언중의 삶과 문화에 주목하는 어문생활사의 관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체감하고, ‘생겨난 말’과 ‘사라진 말’뿐 아니라 ‘남겨진 말’에 숨어 있는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다.

어휘의 역사와 어휘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 및 문화의 맥락을 연결 짓

---

1) 100년 전의 근대 신어를 통해 과거의 문화와 삶의 단면을 탐색하는 연구(김윤희, 2010; 김한샘, 2015; 정한데로, 2019 등)나 최근 생성된 신어로부터 사회문화의 특성을 발견하는 교육적 시도(송현주, 2020; 양영희, 2021 등)는 어휘에 문화와 시대가 담겨 있다는 시선을 전제한다.

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는 기존에도 면면히 이루어져 왔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를 논구한 구본관(2008)에서는 어휘사의 교육적 가치를 문화 교육에서 찾고, 어휘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동석(2019)에서는 어원의 국어교육적 가치를 탐색하면서, ‘시치미(를) 떼다’에서 ‘시치미’, ‘다람쥐’에서 ‘다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어원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학습자에게 우리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어문생활사에 터하여 어휘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거나 내용을 탐색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적었다. 여기에는 어문생활사가 개념과 범위, 외연의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sup>2)</sup>

어문생활사의 개념과 범위는 그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응당 중요하게 논구될 대상이나, 현재로서는 담론 생성의 단계로부터 구체적인 차원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는 ‘어문생활’의 역사로서 생활사의 하위 부류로 여겨지기도 하고, 언어에 담긴 생활의 역사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어휘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를 상호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 ‘언어 변화에 내포된 사회 환경의 변화, 생활 환경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등

---

2) 이 분야는 용어 또한 혼재하고 있다. 김광해(1996)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주제로서 ‘국어생활사’, ‘언어생활사’가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민현식(2003)에서는 ‘국어문화사’가, 김은성(2007), 조동일(2003), 허재영(2008) 등에서는 국어와 국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사를 포괄하여 ‘어문생활사’가 사용되었다. 구본관(2009), 김수정(2015), 김유범(2009), 박형우(2009), 이호형(2011), 장윤희(2005, 2009) 등에서는 ‘국어생활사’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국어생활사’가 통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어문생활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국어’에 한정하는 ‘국어생활사’에 비해 ‘어문생활사’가 문자와 언어로 이루어진 인간 생활의 역사를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적절하다는 백두현(2021: 74-78)의 지적과 같이, ‘어문생활사’가 이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용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을 고려하는 것'(백두현, 2021: 88)은 공통으로 전제될 수 있는 어문생활사의 연구 방법론이라 생각된다.

공동의 연구 방법론을 취하여, 앞으로는 '언어'와 '삶',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를 발견하고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연구 성과가 누적될 때 어문생활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실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문생활사 교육의 정체성과 위상 또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앞으로의 국어사 교육에 대한 관점과 지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 내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언어의 변화를 인간의 삶과 사고, 문화 및 사회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을 '화법과 언어' 영역의 첫 번째 성취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교육부, 2022).

(1) 2022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화법과 언어'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12화언01-01] 언어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 [해설] 이 성취기준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임을 바탕으로 언어를 인간의 사고·사회·문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이해하며 국어 활동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고대 국어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국어와 국어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와 변화를 탐구한다.

(1)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의 맥락과 관련지을 때 언어를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또한 국어사 교육이 '언어와 삶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다.

어휘를 관찰하고 어휘에 담긴 삶의 맥락을 포착하여, ‘어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을 어문생활사 관점의 어휘사 교육이 지향할 목표로 삼을 수 있다.

### III. 어문생활사 교육 내용으로서의 전통 생활 어휘

어문생활사 관점에 터한 어휘사 교육에서 전통 생활 어휘는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 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 즉 농경 등 생업이나 의식주 생활 전반과 관련되는 어휘는 대개 ‘사라져 가는 어휘’이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전통적 생활 양식이 근대적 생활 양식으로 변모하면서 수많은 생활 어휘가 소멸하였거나 소멸 위기에 놓였다.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 ‘도리깨’를 모르고, 옷을 짓지 않아 ‘잉아’를 모르며, 술을 빚지 않아 ‘소줏고리’를 모르는 시대가 된 것이다.<sup>3)</sup>

그러나 과거의 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삶의 변화와 함께 늘 사라져 버리는 것만은 아니다. 한때 널리 쓰이고 모두의 입과 귀에 자주 오르내렸던 어휘는 새로운 의미를 덧입거나, 합성어나 관용 표현처럼 더 큰 언어 단위 안

---

3) 전통 생활 어휘는 ‘민족생활어’(이훈중, 1992)로 포괄되기도 한다. 강정희(2016: 8)에서는 민족생활어를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로 정의하고,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 사고 체계,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고 있다. 전통 생활 어휘는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연구 사업(2007~2016)’ 등 언어 정책적 차원에서 보존되고 기록되고 있다. 소멸 위기 어휘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어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김지숙, 2017, 2021; 안귀남, 2008, 2012; 홍기옥, 2019ㄱ, 2019ㄴ 등). 일련의 조사와 연구는 사라져 가는 어휘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정책적 책무와 사명에 기반한다. 그러나 전통 생활 어휘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정책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자료화 중심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전통 생활 어휘를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교육적 노력 또한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에서 굳어지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얻는 등의 방식으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체 부위인 ‘관자놀이’의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단추이며, 눈과 귀 사이 맥박이 뛰는 자리를 관자가 노는 자리라 하여 ‘관자놀이’라 불렀다(김무림, 2015: 162). 상투를 쓰지 않는 이제는 일상에서 관자를 보기 어렵지만, ‘관자놀이’라는 어휘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붓(筆)을 통(筒)에 꽂아 쓰지 않는 시대이지만 ‘필통(筆筒)’이라는 단어는 사용되며, ‘박차’가 말의 달리기를 재촉하는 구두 뒤축의 톱니바퀴임을 몰라도 ‘박차를 가하다’라는 표현이 언중의 입에 익숙하게 오르내린다.

어휘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질지라도 어휘는 계속 남아 쓰이는 것은 ‘언어의 보수성(linguistic conservation)(Ullmann, 1962)’이나 ‘언어 화석(language fossil)’ 등으로 불리는 언어 변화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전통 생활 어휘는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면서, 언어와 생활, 문화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이다.

백두현(2021: 79-83)에서는 어문생활사의 연구 대상을 ‘당대인의 생활과 밀착된 언어 활동 및 관련 요소’로 설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의식주와 관련된 어휘는 생활 밀착형 소재로서 복식사, 음식사, 건축사 등 인접 생활사 분야와 관련지어 연구될 수 있으며, 비유 표현과 수사법 역시 당대인의 사고방식과 언어생활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보았다.

전통 생활 어휘는 삶과 밀접하며, 비유나 관용 표현 등 일상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문생활사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과거의 삶과 생활은 사라졌을지라도 어휘는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언어와 삶의 밀접한 관련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전통 생활 어휘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종래의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문화는 민족적 정체성의 기반이자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밑거름으로서 그 가치가 강조되어왔다.



과거의 시간이 누적되어 오늘이 존재하고,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가 전통의 바탕에서 성립됨을 고려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은 당위성 이상의 가치가 있다.

기존의 전통문화 교육은 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재현된 과거’를 관찰하거나, 미술, 사회 등 관련 교과 지식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전통문화가 흥미롭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등 학습자에게 과거란 외국과도 같기 때문이다.<sup>4)</sup>

학습자들이 전통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참신하고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어교육에서는 교과 중핵인 언어를 매개로 과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새삼스럽게 관찰하고, 사라져가는 문화가 지금의 언어에 남긴 흔적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현재와 과거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실감하는 유익한 경험이다. 전통 생활 어휘의 유형과 그것을 활용해 경험할 수 있는 어휘생활사 교육 내용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전통 생활 어휘의 유형과 어문생활사 교육 내용

### ㄱ. 합성어에 녹아든 전통 생활 어휘

: 단어 형성의 문화적 배경 발견하기

### ㄴ. 지칭 대상이 달라진 전통 생활 어휘

: 같은 어휘로 지칭되는 사물을 비교하여 생활의 변화 이해하기

### ㄷ. 관용 표현 속의 전통 생활 어휘

: 비유적 의미 생성의 계기를 찾아 표현의 말맛 체감하기

---

4) 소설 *The Go-Between* (Hartley, 1953)의 첫 문장—“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ere).”—를 인용했다.

(2ㄱ)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 과거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구레나룻’과 같은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굴레’ 등 전통 생활 어휘의 외양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엉덩방아, 입방아, 방이쇠, 방아깨비’의 ‘방아’나, ‘삿대질’과 ‘들창코’, ‘헝가래’에서 ‘삿대’와 ‘들창’, ‘가래’에 대해 안다면 단어의 의미와 어감이 한층 살아난다.

(2ㄴ)은 어휘의 외양과 특성이 달라져도 기존 어휘로 계속 지칭되는 경우이다. ‘문고리’, ‘채반’ 등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사용된 도구로, ‘고리’, ‘채’ 등에 사물의 본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어휘의 지칭 대상이 달라졌는데, 같은 이름으로 불렸던 과거와 현재의 사물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탐구거리이다.

(2ㄷ)는 본래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던 어휘가 비유적 의미를 얻어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감투’, ‘물꼬’, ‘박차’, ‘줄행랑’ 등은 과거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관용 표현에서만 쓰여 본래 뜻을 연상하기 어렵다. 관용 표현 속의 전통 생활 어휘를 조사하고 비유적 의미를 얻게 된 계기를 찾아낸다면 일상적인 표현에 담긴 생생한 말맛을 체감할 수 있다.

(2)는 어휘 변화와 관련되면서 문화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다. 다만 어휘의 유형과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은 하나의 안으로써 본을 보인 것이다. 각 유형에 대해 제시한 교육 내용이 꼭 하나의 유형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유형의 어휘를 활용해 계획하는 교육 내용 역시 더 다양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유형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 IV.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의 내용

### 1. 합성어에 녹아든 전통 생활 어휘로 단어 형성의 문화적 배경 발견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어휘 속에 사라진 과거의 어휘가 녹아든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전통 생활에서 자주 사용된 사물은 비유의 소재로 효과적이어서 새 단어를 만드는 데 쉽게 동원되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어휘에서 전통 생활의 흔적을 발견하면 새삼스러움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

대표적으로 ‘구레나룻’, ‘방아쇠’, ‘헝가래’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 오늘날 ‘구레나룻’은 주로 귀 앞으로 이어지는 옆머리를 일컫는다.<sup>5)</sup> 그러나 ‘구레나룻’의 이전 용례를 보면 오늘날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용법이 나타나 흥미롭다.

(3) ㄱ. 連鬚鬚子 구레나룻 <1690 역어유해 상: 34a>

ㄴ. 얹고 검고 키크고 구레나룻 제것 조츠 길고도 넘죽 덤지 아닌 놈이 밤마다 괴여올나 <1713 악합습령 103b>

ㄷ. 한 장쉬 나오되 닐골은 검고 구레나로슬 거스리고 골히눈을 부릅 쓰고 <1865 흥부전 24b>

ㄹ. 온 턱과 뺨을 시커머께 구레나룻이 덩헛거든 <1924 운수좋은날 145>

5) ‘구레나룻’의 사전적 의미는 ‘귀밑에서 턱까지 잇달아 난 수염’(국립국어연구원, 1999)이나, 일상적으로는 ‘구레나룻’이 옆머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검색어 “구레나룻”, 검색일: 2022.06.11.)

- 구레나룻이 귀 중간정도 있게하고싶는데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네이버 지식 iN, 작성일: 2008.01.07.)

- 아무리 신경 써도 봉봉 뜨는 옆머리, 구레나룻이 뜨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모자를 쓰시는 건 아닌가요? (한국일보, 작성일: 2015.02.03.)

ㄴ. 일주일을 넘어 면도를 하지 않았는지 구레나룻이 시키는 턱주가리를 만  
지며 그가 말했다. <1983 불의제전 29>

‘구레나룻’은 (3ㄴ)에서 길고 넓죽한 것, (3ㄷ)에서 우락부락한 장수에게  
있는 것, (3ㄹ)에서 턱과 뺨을 온통 뒤덮은 것, (3ㅁ)에서 턱에 시커멓게 나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구레나룻’에 대한 보통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3ㄱ)에서 ‘구레나룻’은 ‘連鬚鬍子’, 즉 “연속하여 나 있는[連] 귀밑털[鬚]  
과 수염[鬍]”이라 하였다. (3)의 용례를 보여주며 ‘구레나룻’이 어디인지 짚  
어보게 한다면 학습자는 ‘구레나룻’이 지칭하는 정확한 부위가 어디인지 궁  
금함을 느낄 수 있다.

(4) ㄱ. 金 굴레에 낀 ㅁ론 흰 눈 ㄱ흔 터리나라(金靚白雪毛) <1481 두시언해 11: 39a>

ㄴ. ㄷ흐 굴레로써 ㄷ 머리를 ㅁ써 ㄷㅎ고 ㄷ정히 세워 편안히 ㅎ고 <17c 마경  
초집언해 상: 47a>

ㄷ. 말을 달래서 겨우 굴레를 씌워 한번 말잔등에 올라안즈니 <1932.06.02.  
동아일보>

‘구레나룻’의 본뜻은 전통 생활 어휘인 ‘구레’와 오늘날 거의 사라진 어  
휘 ‘나룻’을 알아야만 이해될 수 있다. (4)의 ‘굴레’는 소나 말에 고삐를 채울  
수 있도록 머리에 얹어매는 줄이며<그림 1>, ‘속박의 굴레’ 등에서는 “자유를  
얹어매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나룻’은 수염(鬚鬍)을 뜻하는 고유어이다.<sup>6)</sup>

‘구레나룻’은 마소에 채우는 ‘구레’와 수염을 뜻하는 ‘나룻’이 합쳐진 말  
이다(김무림, 2015: 170). 굴레라는 도구의 외양을 알면 구레나룻이 머리카락  
이 아니라 귀밑에서 입 주변과 턱까지 이어지는 수염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6) ‘나룻’(<나룻>)의 예전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불 디더 죽을 글히더니 브레 날오지 븐거늘 <1518 번역소학 9: 79a>
- 나룻과 머리터럭이 다 허여케 세엿더라 <1774 삼역총해 2: 20a>



〈그림 1〉 굴레 (이훈중, 1992: 368, 445)



〈그림 2〉 살쩍(이훈중, 199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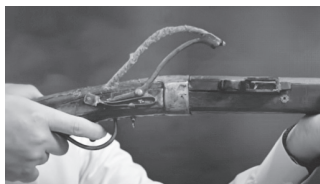
알 수 있다.<sup>7)</sup> 귀 옆머리는 본래 ‘살쩍’이라 하였고, 이전에는 상투를 틀 때 망건 밖으로 빠져나온 머리를 살쩍밀이라는 도구로 밀어넣기도 했다(그림 2).

오늘날에는 시대의 변화로 남성이 상투를 틀지 않고 턱밑까지 수염을 잘 기르지 않는 등 머리 모양이 변화하였다. 그 영향으로 ‘살쩍’은 소멸하고 ‘구레나룻’이 지칭하는 범위는 귀의 옆머리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레나룻’은 형태적 구성과 의미 변화 면에서 언어와 문화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방아’는 곡식을 뺏거나 찧는 도구이며,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전통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였던 ‘방아’는 여러 합성어에 녹아들어 있다. ‘엉덩방아’나 ‘입방아’는 미끄러져 엉덩이로 바닥을 구르는 모양,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모양이 방아를 찧는 모양과 비슷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7) ‘살쩍’의 예전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鬢 살작 빈 <1576 신증유합 21a>
- 망건 당줄로 관자를 꿰어 상투를 묶아 매기도 어렵거니와 그보다도 민빋으로 귀밑털을 빗겨가며 미리개로 그것을 망건 속으로 밀어올리거란 아무리 침을 발라서 밀어 넣어도 어른들처럼 매끈하게 살쩍이 올라붙지 않았다. <1939 봄봄>
- 나이 육십줄에 들어서 살쩍이 희끗희끗해 가는 늙은 어머니 <1956 뎡스>



〈그림 3〉 순발식(瞬發式) 조총 (국립진주박물관, 2021)



〈그림 4〉 조총 격발장치의 구조  
(국립진주박물관, 2021, 숫자 표시는 필자)



〈그림 5〉 방아쇠(국립대구박물관)

한편 총알을 격발시킬 때 당기는 ‘방아쇠’는 본래 화승총에서 불 붙이는 노끈[火繩]을 걸어두는 쇠이다(그림 5). 이 말에 ‘방아’가 포함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 생활 어휘인 ‘방아’뿐 아니라 조총의 구조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순발식 화승총을 쏘 때 불을 붙인 화승(노끈)을 굽은 모양의 ‘방아쇠’에 걸어두며, 이 방아쇠가 떨어져 화약에 불이 옮겨붙으면 연소가 끝난 직후 총알이 발사된다(그림 3). 〈그림 4〉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을 집게 손가락으로 당겨 ②의 작은 걸쇠를 안으로 넣으면 걸쇠에 걸려 있던 ④의 방아쇠가 ③의 탄력을 받아 떨어져 화승 끝의 불이 화약에 옮겨붙는다. 쇠가 ‘탁’하고 떨어지는 모양이 방아 찢는 모양과 닮아 ‘방아쇠’라는 이름이 붙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5) ㄱ. 針 방아쇠 (….) 拜鍊 방아쇠 〈19c초 광재물보 1: 50b, 2: 18a〉

ㄴ. 방아쇠 砧鐵 〈1880 한불자전 301〉

ㄷ. 방아쇠에 화승불을 박아 들고 급히 숨을 곳을 찾다가 (...) 손가락이 방아쇠 걸쇠를 잡아 다렸는데 방아쇠가 쏙 써러지며 총소리가 탕 는다  
〈1908 치악산 상: 147〉

ㄹ. 날름-쇠 名 [1] 총의 방아쇠를 내려떠리는 쇠. 곱쇠. [2] 물건을 통겨지게 하기 위하여 말아 놓은 강철로 만든 장치. 〈294〉 방아-쇠 名 화승총에 화승을 끼는 곱은 쇠. 〈1940 수정증보조선어사전 640〉

옛 어휘집과 사전에서 ‘방아쇠’는 ‘拜鍊(절하는 쇠)’, ‘砧鐵(다듬잇돌 쇠)’에 대응된다. (5ㄹ)에서 ‘날름쇠’가 방아쇠를 떨어지게 하는 쇠, ‘방아쇠’가 화승을 끼우는 쇠라고 하였으므로, 〈그림 4〉의 ② 혹은 ③이 날름쇠, ④가 방아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총의 종류와 상관없이 총알을 발사시키기 위해 집게손가락으로 당기는 ①과 같은 쇠를 두루 ‘방아쇠’로 일컫고 있어, 화승총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방아쇠’의 어원적 의미와 이 말에 ‘방아’가 포함된 배경은 희미해지게 되었다.<sup>8)</sup>

(6) ㄱ. 놀부를 스족을 쓰며 허영가리를 치니 놀뵈 오장이 녹을 듯하여 살거지라  
익결하니 〈1865 흥부전 18b〉

ㄴ. 이이 조년의 계집이 붓잡아서 행가리 치주 (...) 이놈들이 산익와 다르고  
계집이를 행가리가 다— 무엇이냐 쳐치힐 도리가 있다 〈1914 금강문〉

ㄷ. 신랑을 무등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어엿사 어엿자!」 하고 행가래를 쳐서 길길이 치켜 올리다가 두루마기까지 찢었다. 〈1933 영원의미소〉

8) 실제로는 〈그림 4〉에서 ④가 방아쇠임에도 불구하고 ①을 집게손가락으로 걸어 당기는 행위를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는 것은 환유적 인지 기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을 당기는 결과로 ④의 방아쇠가 떨어져 총이 격발되는 결과가 짧은 시간에 매우 인접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인 ‘방아쇠’를 당긴다고 표현함으로써 총을 격발시키는 행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르. 헝가래 뜻 밖에 기쁘고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치하하는 뜻으로, 또는 여러 층층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을 벌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그의 네 활개를 번쩍 들어 잇대어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짓. (옛말: 허영가리)  
헝가래치다 【남】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사지(四肢)를 쳐들어 앞으로 내밀었다 뒤로 들이켰다 하다 <1957 조선말큰사전>

‘헝가래’는 흔히 외래어로 생각되나 고유어이다. 문헌에서 ‘헝가래’는 (6ㄱ)의 ‘허영가리’로 처음 나타나는데, 놀부의 팔다리[四足]를 붙잡고 오장(五臟)이 나올 듯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지칭한다. (6ㄴ)에서도 사람을 붙잡아 헝가래를 친다고 하며, (6ㄷ)에서는 사람을 치켜올리는 행위를 ‘헝가래 치다’로 표현하고 있다.

‘가리(>가래)’는 농사일을 할 때 흙을 파헤치거나 떼서 던지는 도구인데, 팔다리를 붙잡고 흔드는 행위가 가래질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허영가리’라고 한 것이다.<sup>9)</sup> “경기에 이겼을 때 사람을 위아래로 던져 올렸다가 받는 동작”이라는 의미는 (6ㄷ)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 덧붙여진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삿대질’에는 배를 미는 도구인 ‘삿대’가, ‘들창코’에는 전통 가옥에서 위로 들어 여는 창 종류인 ‘들창’이 녹아들어 있다. 여러 사례를 모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9) ‘허영’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으나 용례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비다’를 뜻하는 ‘허(虛)’와 관련지어 가래질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빈 가래로 손을 맞추어 보는 행위를 ‘헝가래’라 하였다는 견해도 있고, 네 팔다리를 붙잡힌 채 발버둥치는 행위가 헝가래 치는 행위와 유사하여 ‘헤엄가래’라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표 1〉 합성어에 녹아든 전통 생활 어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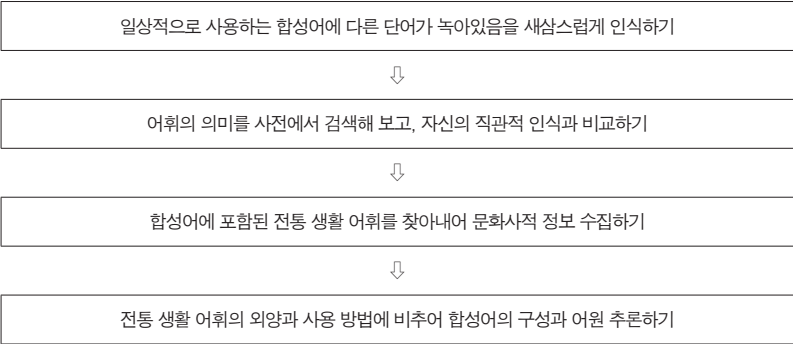
일상 어휘	전통 어휘	뜻풀이 및 어원 정보
구레나룻	구레	구레나룻: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굴레: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
		말이나 소의 얼굴에 귀밑에서 턱으로 이어지도록 매는 굴레처럼 수염(나룻)이 났다고 하여 <b>구레나룻</b> 이라 함
관자놀이	관자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관자(貫子):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이 위치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데서 <b>관자놀이</b> 라 함
엉덩방아	방아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광 구르는 짓 방아: 곡식 따위를 찌거나 뺨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엉덩이로 바닥을 광 구르는 짓이 방아 찌는 모양과 닮아 <b>엉덩방아</b> 라 함
입방아	방아	입방아: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입으로 방아를 찌는 듯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하여 <b>입방아</b> 라 함
방아쇠	방아	방아쇠: ① 소총이나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② 예전에, 화승총에 화승을 끼우던 굵은 쇠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S자 모양의 쇠(용두)가 방아를 찌듯 떨어져 화약에 닿아 격발하게 되므로 <b>방아쇠</b> 라 함
삿대질	삿대/ 삿대	삿대: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삿대질: ① 삿대대를 써서 배를 밀어 감 ② 말다툼을 할 때에, 주먹이나 손가락 따위를 상대방 얼굴 쪽으로 내지름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서 손가락을 자신의 얼굴 옆에서 상대방의 쪽으로 내지르는 행위가 배를 움직이기 위해 삿대(삿대)를 미는 모양과 유사하여 <b>삿대질</b> 이라 함
들창코	들창	들창: 전통가옥에서, 위로 들어서 여는 창 들창코: 코끝이 위로 들려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코
		코끝이 위로 들려 콧구멍이 드러난 모양이 창을 위로 들어올려 속이 흰히 보이는 들창의 외양과 유사하여 <b>들창코</b> 라 함
헥가래	가래	가래: 흙을 파헤치거나 떼서 던지는 기구 헥가래: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
		사람의 팔다리를 잡아들고 앞뒤로 흔드는 행위가 가래로 흙을 파헤치는 행위와 유사하다는 데서 ‘허영가리’라 한 말이 <b>헥가래</b> 로 변함

위 어휘는 모두 전통 생활 어휘가 가리키는 도구의 외양이나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어원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사라졌음에도 단어 속에는 과거의 어휘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유형의 어휘를 교육적 장면에서 활용한다면 교사는 합성어를 제시하고, 합성어에 포함된 단어를 파헤쳐 보도록 과제를 주며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 학습자는 교사로부터 힌트를 얻어, 문화사 지식을 탐색하고 어휘사 지식과 연결하며 ‘정답’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sup>10)</sup>

합성어 내부에서 어형이 쉽게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은 ‘언어 화석’이라 불리는 언어 현상이다. 또한 ‘방아쇠’가 방아처럼 떨어져 화약에 닿는 쇠이지만 손가락으로 당기는 장치를 가리키게 된 것은 환유의 기제, ‘입방아’, ‘삿대질’ 등에서 구체물이 추상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은유의 기제에 의한 다의화로 볼 수 있다.

어휘 탐구의 결과에 교사의 설명이 덧붙는다면 학습자는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상의 탐구 및 학습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10) ‘엿방아’와 같은 어휘는 결론에 이르기 쉽고, ‘구레나룻’과 같은 어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므로, 학습자의 학년 및 수준에 따라 과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제시하는 어원 정보와 자신의 탐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전통 생활 어휘와 어휘 변화 현상(언어 화석, 은유, 환유 등)에 대해 이해하기

〈그림 6〉 ‘합성어에 녹아든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학습의 흐름

## 2. 지칭 대상이 달라진 전통 생활 어휘로 생활의 변화 이해하기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사물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언중은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어휘가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어휘는 달라지지 않는 일이 많다. ‘문고리’, ‘바가지’, ‘반질고리’, ‘채반’, ‘필통’ 등은 전통 사회로부터 새로운 뜻을 덧입어가며 사용되어 온 단어이면서, 어휘가 본래 지칭하던 대상의 속성이 어휘의 내부 구성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데 쓰는 ‘문고리’는 본래 문에 다는 둥근 모양의 ‘고리’이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는 문이나 살창이 마주하는 곳에 각각 문고리와 배목이 달린다. 배목에 문고리를 걸고 문고리에 달린 비녀목을 배목 머리를 통하도록 지르면 창이 고정되어 반대편에서 열 수 없다(그림 7, 8).



귀속110202



〈그림 7〉 문고리(회암사지박물관)

〈그림 8〉 전통 가옥의 문고리와 배목(김왕직, 2007: 243)

전통적인 문고리의 속성을 반영하여 흔히 ‘문고리를 걸어 잠그다’라는 표현을 쓴다.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고리를 배목에 걸고 비녀목을 가로질러 반대편에서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20세기 초까지는 (7)과 같이 ‘문고리를 걸다’의 의미가 투명하게 이해되는 용례가 발견된다.

- (7) ㄱ. 쇠를 잠으지 안코 다몬 문고리몬 거느지라 <1897.08.24. 독립신문 제100호>  
 ㄴ. 안으로 걸어맷든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핵 열어노앗다 <1927.08.05. 조선일보>

과거에는 ‘고리’ 모양의 문고리가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식 주택 문화가 보급되면서 문고리는 ‘고리’ 모양에서 버튼이 달린 구형(球形)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언중은 동일한 용도의 도구를 다른 어휘로 부르지 않고 여전히 ‘문고리’로 지칭하였다.

- (8) ㄱ. 방문이 잠겨진채 있나 없나를 알기위해 문고리를 비틀어 보면서 <1956.02.04. 동아일보>  
 ㄴ. 호텔 안은 발각 뒤킷혔다. (...) 이방 저방의 문고리를 슬쩍 돌려보는 것이 아닌가. <1979.11.02. 경향신문>

(8)의 ‘문고리를 비틀다/돌리다’로부터 ‘문고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배목에 거는 고리가 아니라 레버를 돌려 걸림쇠를 푸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신문 자료의 ‘문고리’ 용례에서 함께 삽입된 삽화를 통해 그 외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9).



〈그림 9〉 ‘문고리’ 삽화 (1975.03.12. 경향신문 / 1975.03.22. 경향신문 / 1979.11.02. 경향신문)

공간 디자인의 발달로 문을 여닫는 손잡이는 고리형에서 구형으로, 막대를 내려 여는 레버형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문고리’가 종종 사용된다.<sup>11)</sup> 문고리는 본래 ‘고리’였음에 주목하여 ‘문고리’의 시대별 지칭 대상을 비교하면 전통 가옥으로부터 시작되는 현대 주거 생활의 변화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바가지’나 ‘채반’에는 지칭 대상의 재료가 반영되어 있다. ‘바가지’는 본래 식물 ‘박’의 단단한 겉껍질로 만들었다. ‘채반’의 ‘채’는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가느다란 나무오리이며, 본래는 나뭇가지를 엮어 채반을 만들었다. 오늘날 바가지나 채반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지만 명칭은 같다.



〈그림 10〉 고리(국립민속박물관, 2007: 272)



〈그림 11〉 반진고리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2〉 현대 반진고리 (국립민속박물관)

바늘, 실 등 바느질 도구를 담은 ‘반진고리’의 ‘고리’는 버드나무 가지나

11) 오늘날에는 ‘문고리’로 지칭되는 사물의 외양이 더욱 다양하다. (네이버, 검색어 “문고리”,

대오리 따위로 엮어 만든 상자이다(그림 10).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질고리’는 종이, 나무, 자개, 플라스틱 등 제작 소재가 다양하게 발달해 왔는데(그림 12), 기존에는 대오리를 엮어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11). 지칭 대상이 달라진 전통 생활 어휘를 모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칭 대상이 달라진 전통 생활 어휘의 예

어휘	본래의 의미와 개신된 의미	
문고리	본래 의미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여닫기 위해 쓰는 둥근 고리
	개신 의미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여닫는 손잡이의 통칭
바가지	본래 의미	박을 두 쪽으로 찢개 속을 파 물을 퍼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
	개신 의미	물을 퍼거나 물건을 담기 위해 쓰는 둥근 그릇의 통칭
반질고리	본래 의미	바느질 도구를 담는, 키버들가지나 대오리를 엮어 만든 고리
	개신 의미	바느질 도구를 담는 함의 통칭
채반	본래 의미	싸릿개비나 버들가지를 걸쳐 음식물을 받쳐 놓는 그릇
	개신 의미	음식물을 받쳐 놓기 위해 쓰는 그릇의 통칭
필통	본래 의미	붓을 꽂아두는 통
	개신 의미	필기구를 꽂아 두거나 담아 다니는 물건의 통칭

과학, 기술, 관습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이 변화하여도 어휘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는 일이 어휘 변화에서 흔히 발견된다. Ullmann(1962)에서는 이를 ‘언어의 보수성(linguistic conservation)에 의한 의미 변화’로 설명하였으며, 윤평현(2008: 201)에서는 ‘역사적 원인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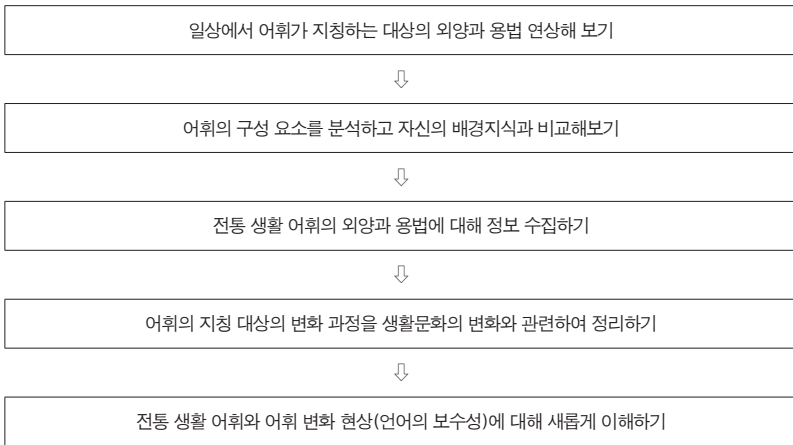
---

검색일: 2022.06.15.)

- 방문 문고리 교체 방법 원형에서 레버형(바형) 손잡이로 바꾸기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2020.03.29.)
- 문고리는 실버톤의 바형으로 제작하여 미팅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2022.04.11.)

한 의미 변화'로 유형화하였다. 지시물의 변화에 따른 어휘 의미의 전이는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의미 변화의 한 원인이며, 교육적 관점에서는 문화사와 언어사의 접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탐구거리이다.

학습자는 '바가지', '반진고리' 등의 전통 생활 어휘로부터 '박', '고리' 등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여기에는 단어 형성이나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후 분석해낸 요소를 힌트로 삼아, 대상의 이전 모습을 검색하며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교사는 유사한 의미 변화의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지칭 대상이 달라진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학습의 흐름

### 3. 관용 표현 속 전통 생활 어휘로 표현의 맛매 체감하기

전통 사회의 생활 어휘가 관용 표현으로 널리 쓰이면서 본래의 의미는 희미해진 경우가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사물이 비유적인 표현에 활용되어 그대로 쓰임이 굳어진 것이다.

농경 생활과 관련되는 '물꼬'와 주거 생활과 관련되는 '줄행랑', '어깃장'

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물꼬’는 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만든 좁은 통로이다.<sup>12)</sup> ‘물꼬’가 농경과 관련된 맥락에서뿐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경우가 20세기 초부터 자주 보인다.

(9) ㄱ. 물썰 <19세기 초 광재물보>

ㄴ. 형이란 사람은 책상물림으로 농사하고는 물꼬도 볼 줄 모르니 <1933 고향 26>

ㄷ. 관군이 쏘다저 내려 가는 형세가 마치 물꼬에 물을 터노흔 것 가터서 <1939 임거정 568>

ㄹ. 만 명도 더 되는 차 손님은, 물꼬를 터뜨린 것처럼 한꺼번에 그리로 쏠려 들었다. <1949 소년은자란다 83>

ㅁ. 분단 46년 만에 막혔던 남북직교역의 물꼬를 튼다는 사실과 함께 (...) <1991.07.21. 한겨레신문>

‘물꼬’가 (9ㄷ - ㅁ)의 ‘물꼬를 트다’, ‘물꼬를 터뜨리다’ 등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농경 생활과 관련이 깊다. 과거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물길을 잘 터서 논에 적당량의 물을 가두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논에 낸 모는 일정 기간 물을 대주고 빼주어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돌보는 것을 ‘물꼬 보기’라 한다.<sup>13)</sup>

전통 사회에서 ‘물꼬’를 트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그림 14). 수량(水量)이 풍부할 때 고랑에 물꼬를 내면 콧물물이 쏟아지는 모양이 무척 시원스러워, ‘물꼬를 트다’가 “막혀 있던 일을 진전시키다/해결하다”의 비유적 의미를 얻었다. ‘물꼬’는 ‘굴레’, ‘멍석’, ‘멍에’, ‘붓물’ 등과 함께 전통적

12) ‘물꼬’는 ‘물(水)[水]’과 ‘ㅂ’, “한쪽 방향으로 트이어 나가는 길”을 뜻하는 ‘곶[向路]’의 합성어 ‘물곶/물곶’에서 변한 말이다.

13) 논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흙을 떠서 옮기는 ‘살포’라는 도구도 있었고, 물이 살살 흘러 나가도록 물꼬를 작게 트는 구멍을 ‘우리구멍’이라 하기도 하였다(이훈중, 1992).





〈그림 14〉 “물꼬 따기 바쁜 農夫들”  
(1936.06.08. 동아일보)



〈그림 15〉 줄행랑(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인 농경 생활이 일상 언어에 남긴 흔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줄행랑’은 행랑이 한 채뿐인 ‘단행랑’과 대비하여 대문의 좌우로 길게 벌여 있는 여러 채의 행랑을 가리킨다(그림 15). 행랑은 주로 하인들이 거처하는 방이었으므로, 줄행랑이 길게 늘어질수록 많은 하인을 거느린 지체 있는 양반집이었다.

(10) ㄱ. 좌우를 살펴보니 고쥬디문 줄행랑의 안팎 중문 호인청과 몸치 것치 고루거각이 분명하고 <20c 정두경전 11b>

ㄴ. 줄행랑 집을 팔아 단행랑 집을 사고 단행랑 집을 또 팔게 되자 더 적은 집엔 들 수 업다하야 <1923 지새는안개 137>

(11) ㄱ. 즐옥하고 달녀드니 어식 착급하여 혼이 써서 삼십륙계 중 줄행랑이 웃듬이라 <1869 남원고소 권지스: 26a>

ㄴ. 탈로만 나면 경이나 치게 고만 줄행랑을 히 오는 길일세 <1922 고목화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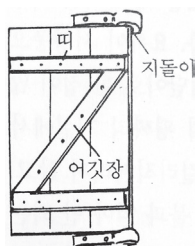
ㄷ. 사양 비슷하게 작별인사말을 하고는 南大門밧그로 줄행랑을 친다.  
<1927.02.01. 별건곤4호>

ㄹ. 거름아 날 살려라 하고 삼십륙계 줄행랑을 불렀다. <1933.07.01. 별건곤65호>

ㅁ. 요 몃을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번서 줄행랑을  
논 뒤요 (1936 모밀꽃필무렵 297)

‘줄행랑’은 본래 (10)에서처럼 전통 가옥을 가리키지만 (11)에서처럼  
“도망”의 의미로도 자주 쓰였다. (11 ㄱ)의 고소설에서부터 용례가 나타나며,  
(11 ㄴ - ㄹ)와 같이 ‘줄행랑을 하다/치다/부르다/놓다’ 등으로 쓰이다가 오늘  
날 ‘줄행랑을 치다’가 굳어졌다.

‘줄행랑’이 “도망”을 의미하게 된 것은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 길게 행랑  
을 치는 형상과 유사하다는 것과 관련이 된다(조항범, 2009: 141).<sup>14)</sup> 꿈무늬를  
빼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행랑이 길게 늘어진 풍경을 떠올려 엮어낸 ‘줄행  
랑을 치다’는 언중의 시각적 상상력과 언어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림 16〉 널문의 어긋장(이훈종, 1992: 154)

‘어긋장을 놓다/대다’ 역시 과거의 주거 문화와 관련된다. ‘어긋장’은

14) ‘삼십육계’는 손자병법에 나온 36가지 전쟁 계책 마지막인 ‘주위상책(走爲上策,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이다. 어려운 한문 표현 대신 “도망” 의미의 ‘줄행랑’을 덧붙인 것  
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끊임없이 줄지어서 걸음/달림’을 의미하는 어휘 ‘줄걸음질/줄  
달음질’이 있었던 것도 ‘줄행랑을 치다’의 생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 어제는 뉘 부음편지를 가지고 가는 드시 줄다림질하여 가더니 오날은 어이 그리 완보  
장턴호느고 (1864 남원고스 권지일: 36b)

“어긋나게 지나치다”를 의미하는 ‘어기다’에 ‘장(杖)’이 결합한 말이다. 널판 자에 가로로 덧장을 박아 널문을 고정하는데, 비바람이나 햇빛에 문짝이 비틀어지기 쉬워 대각선으로도 띠목을 붙인다<그림 16>. 이것을 ‘어깃장’이라 하고, 문짝에 어깃장을 박는 것을 ‘어깃장을 놓다/치다/대다’ 등이라 하였다.

어깃장을 대는 것이 “비뚤어짐, 순순하지 않음” 등의 부정적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남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뻔대다”의 비유적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 밖에 관용 표현에서 비유적 의미를 가진 전통 생활 어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관용 표현 속 전통 생활 어휘의 예

어휘	뜻풀이 및 어원 정보	
감투	본래 의미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던 관의 하나
	관용구	<b>감투</b> 를 쓰다/벗다 ▶ 높은 지위에 오르다 / 물러나다
	비유 의미	직책이나 지위
굴레	본래 의미	소나 말을 다루기 위하여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
	관용구	<b>굴레</b> 를 벗다 ▶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다
	비유 의미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얹매는 일
명석	본래 의미	사람이 앉거나 곡식을 너는 데 쓰는, 짚으로 엮어 만든 큰 자리
	관용구	<b>명석</b> 을 깔다 ▶ 어떤 일을 할 기회를 만들거나 자리를 마련하다
명예	본래 의미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 소나 말의 목에 가로로 엮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관용구	<b>명예</b> 를 메다 ▶ 어떤 일이나 인식에 얹매이다
	비유 의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
물꼬	본래 의미	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만들어 놓은 좁은 통로
	관용구	<b>물꼬</b> 를 트다 ▶ 진전 없이 막혀 있던 일을 시작되게 하다
	비유 의미	진전이 없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푸는 실마리나 계기

박차	본래 의미	말을 탈 때 구두의 뒤축에 다는, 톱니바퀴 모양의 쇠로 만든 물건
	관용구	<b>박차를</b> 가하다 ▶ 어떤 일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힘을 쏟다
	비유 의미	어떤 일을 재촉하여 잘 되도록 더하는 힘
붓물	본래 의미	보(漕)에 고인 물 또는 보에서 흘러내리는 물
	관용구	<b>붓물</b> 이 터지다 ▶ 일이나 감정의 상태가 급격히 활성화되다
산통	본래 의미	소경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는 데 쓰는 산(算)가지를 넣어 두는 통
	관용구	<b>산통</b> 을 깨다 ▶ 다 되어 가던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망치다
썰기	본래 의미	물건과 물건 사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이는 납작하고 뾰족한 물건
	관용구	<b>썰기</b> 를 박다 ▶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을 두다 / 시험 따위에서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다 / 남의 사이를 틀어지도록 훼방을 놓다
어깃장	본래 의미	널빤지로 문을 짤 때, 이어 붙인 나무판 따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문짝에 대각선으로 붙인 굵은 나무
	관용구	<b>어깃장</b> 을 놓다 ▶ 집짓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다
	비유 의미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
주마등	본래 의미	등 한가운데에 바퀴를 붙인 가는 대오리를 세우고 종이로 만든 네 개의 말의 형상을 달아, 촛불로 데워진 공기가 종이 바퀴를 돌려 말 형상이 따라 도는 등의 종류
	관용구	<b>주마등</b> 처럼 스치다 ▶ 무엇이 빨리 지나감
줄행랑	본래 의미	대문 좌우로 죽 벌여 있는 행랑
	관용구	<b>줄행랑</b> 을 치다 ▶ 빠르게 도망가다
	비유 의미	공무리를 내뺀며 서둘러 가는 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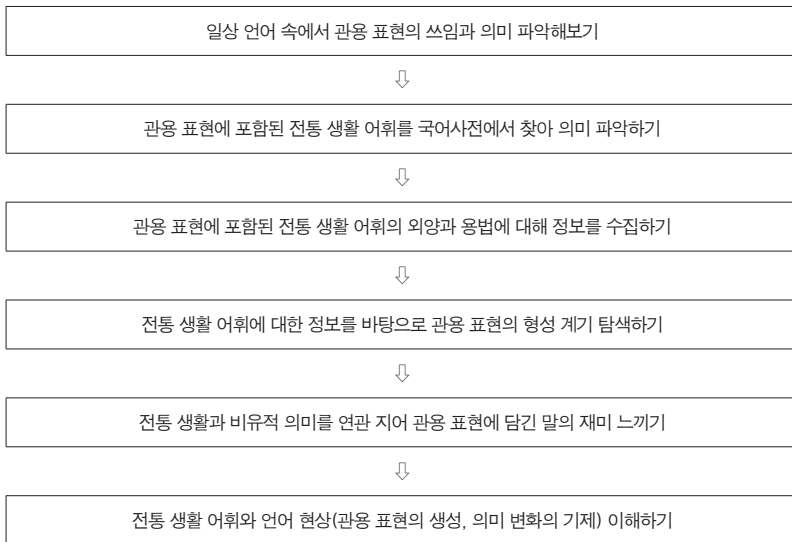
이상의 어휘와 관용 표현 중에는 어휘 의미뿐 아니라 관용 표현이 생성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산통을 깨다’는 산통이 맹인이 점을 칠 때 쓰는 산가지 통이라는 정보 외에, 산통을 깨는 행위가 산가지를 뽑지 못하게 하여 점쟁이의 밥벌이를 방해한다는 옛 풍경에 대한 이

해도 필요하다.<sup>15)</sup>

전통 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관용 표현의 유래를 탐구하는 활동은 표현의 재미와 말맛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계기를 준다.<sup>16)</sup> 전통 생활 어휘가 관용 표현 안에서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은유와 환유의 기제가 작용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벼슬아치가 쓰는 모자인 ‘감투’가 벼슬자리를 의미하게 된 것에는 환유의 인지 기제가, ‘굴레’나 ‘멍에’가 마소에 얹어매는 도구이다가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의미하게 된 것에는 은유의 인지 기제가 작용한다.

‘그는 매일 6시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출행랑(→도망)이다’에서처럼, 관용구가 널리 쓰여 관용구 속 명사가 관용구 전체의 의미를 대표하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언어 변화 현상이다.<sup>17)</sup> 관용 표현 속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학습의 흐름을 그려 보면 <그림 17>과 같다.

- 
- 15) 다만 관용구가 한민족만의 전통 생활을 반영하는지, 여러 언어권의 문화를 공통으로 반영하는지는 별도로 염두에 둘 문제이다. 한자어는 한자 문화권에서 비유적 의미까지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박차를 가하다’의 경우 일본어에서도 ‘拍車をかける’라는 동일한 관용구가 있고, ‘주마등’에는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도 “변화가 빠르거나 빈번함”의 비유적 의미가 있다. 이는 나라 간 언어 교류와 문화 접촉의 결과로, 교육적 활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16) 어휘 결합을 메타적으로 사고해 보는 교육 활동은 신명선(2015), 정은진(2019, 2020) 등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신명선(2015)에서는 ‘기가 막히다’, ‘간담이 서늘하다’ 등의 연어에 담긴 국어 문화와 언어적 상상력, 창의성에 주목했다. 정은진(2019)에서는 개화기의 연어 ‘사진을 박다’에서 신문물 ‘사진’에 대한 개화기 언중들의 인식과 상상력을, 정은진(2020)에서는 ‘TV를 틀다’, ‘채널을 돌리다’ 등의 연어에 담긴 생활문화사적 배경을 발견하여 탐구 활동으로 구안한 바 있다.
  - 17) ‘바가지’가 ‘바가지를 굶다’를 거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나 불평”을 의미하거나, ‘바가지를 씹우다’를 거쳐 “정해진 값보다 높게 매긴 값”을 의미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 현상에 대해 최경봉(2015: 227-248)에서는 관용어가 통사적으로는 구이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에, 구성 성분 중 의미적 중심을 차지하는 명사가 관용구 전체에서 형성된 은유적 의미를 흡수하기 쉽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17〉 ‘관용 표현 속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학습의 흐름

## V. 나가며

지금까지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종래에 어휘사 교육의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어휘를 둘러싼 삶과 문화의 역사에 주목하는 어문생활사 역시 어휘사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자 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문화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어휘사는 언어와 삶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교육 내용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통 생활 어휘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와 현대의 학습자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를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어휘를 매개로 국어와 다른 학문의 접면을 발견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여 더 큰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은 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

시키는 교육 내용이기도 하다.<sup>18)</sup> 본 연구는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어휘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가 장기적으로 어휘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바탕이 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본 연구는 어문생활사의 어휘사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시론이기에 어문생활사에 대한 이론적 천착에는 소홀하였다. 어문생활사 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성과가 쌓이면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휘사뿐 아니라 국어사는 지루한 옛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어 온 삶의 모습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학습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 흥미롭고 참신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국어사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3.05.10. 투고되었으며, 2023.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3.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18) 박휴용(2017: 38)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 과정을 논구하면서, 하나의 지식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역이나 지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고, 그 결과로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으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어져 응용되거나 적용되는 전이(transfer)가 일어나며, 통찰을 지속적으로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려는 탐구의 과정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더 큰 함으로써 존재하는 지식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관찰과 전이, 통찰과 해석이 넘나드는 지식의 통섭을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어문생활사 관점의 어휘사 탐구에서 체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희(2016),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 개관」, 『방언학』 24, 5-27.
- 경향신문(1975. 3. 12.), 〈배회〉(16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일자 2023. 6. 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65pmoe>.
- 경향신문(1975. 3. 22.), 〈배회〉(17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일자 2023. 6. 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8wop9m>.
- 경향신문(1979. 11. 2.), 〈世相 이렇습니다 裏窓을 통해본 職業人의 実像 〈221〉- 호텔 従業員 (종업원) (17) 물건 털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일자 2023. 6. 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rkoav3>.
- 교육부(2022), 『2022 국어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구분관(2008),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1, 77-127.
- 구분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 10, 1-48.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대구박물관, 방아쇠(칠곡 17423), e뮤지엄, 검색일자 2022. 6. 11., 사이트 주소 <https://zrr.kr/mawR>.
- 국립민속박물관(2007), 『한민족역사문화도감-식생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반진고리(민속 75591), e뮤지엄, 검색일자 2023. 6. 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b5axzf>.
- 국립민속박물관, 휴대용 반진고리(민속 82429), e뮤지엄, 검색일자 2023.6.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r467tq>.
- 국립진주박물관(2021. 7. 16.), 조총학개론-타임슬립 대비, 조총을 배우자,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검색일자 2022. 6. 11., 사이트 주소 <https://youtu.be/syKT4VxIJ78>.
- 김광해(1996), 「국어발전의 양상」, 『선청어문』 24, 123-146.
- 김무림(2015), 『한국어 어원사전』, 서울: 지식과교양.
- 김수정(2015), 「국어생활사 교육내용 분석 연구」, 『문법교육』 25, 27-57.
- 김왕직(2007),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경기: 동녘.
- 김유범(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교재」, 『문법교육』 10, 49-64.
- 김윤희(2010), 「한국 근대 新語연구(1920년~1936년)-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1, 37-67.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437-468.
- 김지숙(2017), 「어획물 명명 기반에 따른 명칭 연구」, 『어문론집』 69, 55-93.
- 김지숙(2021), 「어촌 지역 관용 표현의 형태·의미 고찰—동해안 어민들의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어문론집』 85, 7-38.
- 김한샘(2015), 「신어사전에 나타난 근대 사회 문화 연구-의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새국어



- 교육』 104, 449-482.
- 동아일보(1936. 6. 8.), 물꼬 따기 바쁜 農夫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일자 2023. 6. 18., 사이트 주소 <https://url.kr/uf1ghp>.
-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 201-267.
- 박형우(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시고」, 『문법교육』 10, 145-173.
- 백두현(2021), 『한글생활사 연구』, 서울: 역락.
- 박효용(2017), 『융합지식과 융합교육과정』, 전북: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송현주(2020), 「「신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 방안」, 『한민족어문학』 89, 61-94.
- 신명성(2015), 「문법 교육에서 어휘적 언어 수용의 한 방향」, 『한국어 의미학』 47, 55-82.
- 안귀남(2008), 「용기 어휘의 분화 양상-경북 지역 '독류'의 명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9, 101-148.
- 안귀남(2012), 「경북 지역 용기 제작 관련 어휘 연구」, 『방언학』 15, 211-255.
- 양영희(2021), 「새말을 매개로 한 국어교육 내·외 통합 학습 수업 설계」, 『새국어교육』 126, 307-340.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서울: 역락.
- 이동석(2019),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국어사연구』 28, 159-200.
- 이호형(2011),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교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503-536.
-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사전』, 경기: 한길사.
- 장윤희(2005),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 141, 107-132.
-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교육』 10, 287-311.
- 정은진(2019), 「통시적 관점의 언어 교육 제안- '사진' 관련 언어 표현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9, 175-205.
- 정은진(2020), 「어휘적 언어의 형성 원리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가전제품 관련 어휘적 언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9),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새국어생활』 29(3), 9-23.
- 조동일(2003), 「이상택, 박동규 교수 정년퇴임기념호-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연구』 28, 69-90.
- 조항범(2009),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경기: 예담.
- 최경봉(2015), 『어휘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행랑채, 국립민속박물관, 검색일자 2022. 6. 11., 사이트 주소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8581?pageType=search&keyword=%ED%96%89%EB%9E%91>.
- 허재영(2008), 「어문생활사 연구 대상과 방법」, 『우리말글』 42, 135-153.
- 홍기옥(2019ㄱ), 「경북 성주지역의 짚 관련 어휘 연구」, 『인문논총』 76(4), 205-238.
- 홍기옥(2019ㄴ), 「한국 해양문화 '채낚기' 관련 어휘 연구-경남 통영시 욕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87, 1-34.

회암사지박물관, 문고리(귀속 11202), e뮤지엄, 검색일자 2022. 6. 11., 사이트 주소 <https://url.kr/clq2az>.

Hartley, L. P. (1953), *The Go-Between*, Chicago: Scarborough House.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 연구

정은진

본 연구는 어휘사 교육의 어문생활사적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고, 전통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문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어휘의 변천에 대한 개별적 기술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어휘사 교육에 어휘에 담긴 언중의 삶과 문화에 주목하는 어문생활사의 관점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전통 생활 어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비유나 관용어 등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도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삶의 양식은 사라졌을지라도 어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남아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전통 문화 어휘에 대한 어문생활사적 접근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언어와 삶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깨우쳐주며,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거와 현재, 삶과 언어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말의 역사와 삶의 역사를 아우르는 창의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어휘사 교육, 어휘 교육, 어문생활사, 어원, 전통 생활 어휘

## ABSTRACT

# The Education of the Linguistic Life History Using Traditional Life-related Vocabulary

Jung Eunjin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linguistic life history approach to vocabulary history education. It presented the methods and contents of linguistic life history education, focusing on vocabulary related to traditional life.

Traditional life vocabulary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Our daily language expressions such as metaphors and idioms reflect this. Although the traditional way of life has disappeared, the vocabulary remains in our language life in various forms and retains vitality.

The historical approach to traditional cultural vocabulary teaches today's learners the close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lif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value of traditions and cultures.

**KEYWORDS** Vocabulary History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Linguistic Life History, Etymology, Traditional Life-related Vocabulary